

요양보호사 교육 참가자의 학습동기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Academic Motivation on the Learning Flow with Training for Caregivers

노효련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Hyo-Lyun Roh(hyolyun2000@yahoo.co.kr)

요약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의 학습동기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B시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생 230명이었다. 연구도구는 학습동기 척도와 몰입 상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동기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내재적, 외재적 학습동기가 학습몰입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은 학습동기가 증가될수록 높아지는 성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외재적 학습동기보다 내재적 학습동기가 학습몰입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몰입정도는 내재적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외재적 동기에도 영향을 일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중심어 : | 학습동기 | 요양보호사 | 학습몰입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caregivers' academic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raining affects their learning flow with their training. This study surveyed 230 trainees at a caregiver training agency in City B. A survey was conducted, and questionnaire was conceived to obtain the measure of two latent variables: learning flow, motivation to learning.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Intrinsic motivation and extrinsic motiv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learning flow. However Intrinsic motivation had high level of correlation than extrinsic motivation on learning flow. Therefore, learning flow had not alone intrinsic motivation but also partial correlation with extrinsic motivation. The multidirectional study is require the caregivers' training for development, caregivers' training and Management.

■ keyword : | Academic Motivation | Caregivers | Flow |

I. 서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나 뇌졸중과 같은 장기요양과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1]. 이에 정부는 노인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에 대한 적절한 서

접수번호 : #110214-004
접수일자 : 2011년 02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3월 17일
교신저자 : 노효련, e-mail : withtry@yahoo.co.kr

비스 및 효율적인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를 시행하였다[2].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주도형 요양서비스 민간시장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많은 성과를 내어서 단 1년 만에 요양시설 44.5%, 재가기관 117.9%가 증가하였고 요양보호사는 46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육기관 및 요양보호사 민간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 대한 인프라의 과잉공급을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소양과 적절한 교육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지 못한 채 요양보호사가 배출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으며[3],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4-6].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제도와 현실적 적용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교육의 주체로서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논의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요양보호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정과 지원물자와 같은 물리적 요인들의 확충도 필수적이지만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실현하는 관련 인력의 가치와 신념, 자질과 능력이 사업수행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7].

요양보호사 교육 참가자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는 실용적인 학습자(pragmatic learner)로서 학습 그 자체가 흥미로워서 학습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업적 성취, 당면한 문제해결, 새로운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 사회적 관계형성 등 실생활과 관련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학습에 참여한다. 그들은 실제 생활로부터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요구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전개한다. 성인 학습자적인 관점에서 요양보호사 교육 참가생들을 보았을 때, 이들은 자율적이지 못한 채 교육적 개입에 의존하여 끌려가는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학습에 대한 자발성을 갖추고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며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진화시켜 나가는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학습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의미있는 것들을 스스로 실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열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학습에 몰입하게 될 것이다[8][9]. 몰입은 그 자체로

즐거움이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몰입 그 자체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되기도 한다[10].

Csikszentmihalyi(1975)[11]는 개인이 주어진 환경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즐거운 상태이며 자신의 활동에 전적으로 몰두한 상태를 ‘몰입(flow)’ 이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몰입이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즐겁게 탐색적 몰두와 집중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통제해 나가는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몰입은 고차원 학습 또는 구성주의적 학습을 위한 전제로서 적극적이고 탐색적인 학습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집중과 참여를 촉발시켜 주는 심리적 기제이다[12].

학습동기는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관심, 집중, 노력, 지속과 같은 행동들이 활성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이다[8]. 동기(motivation)란 일반적으로 목표지향적인(goal-directed) 행동을 유발시키고 지속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13]. 학습동기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된다. 내재적 동기는 활동 그 자체에서 유발되는 흥미, 즐거움, 만족 때문에 학습하는 것을 말하며, 외재적 동기는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외적 보상 때문에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14]. 학습자가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고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를 보이게 하는 학습 동기는 개인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15].

요양보호사는 노인 요양에 필요한 인력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에게 신체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되는 필수 요원으로, 요양보호사의 자질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5].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의 적절한 성과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 참가생들의 학습동기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내에 소재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5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조사 대상자들이 자기 기입식(self-administered)으로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2. 조사 절차

조사기간은 2010년 3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사전에 협조를 얻은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의 인원에 맞게 배포하여 총 230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90% 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설문지는 학습동기 21문항, 학습몰입척도 22문항, 개인적인 특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동기는 Vallerand 와 Bissonnette(1992)[16]의 학습동기 척도와 김진호(2003)[8]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학습몰입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Jackson과 Marsh(1996)[17]가 개발한 몰입상태 척도(Flow State Scale: FSS)를 성인 학습상황에 맞게 변안한 박에스터(2009)[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Likert의 5단계 척도로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5점), 그런 편이다(4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와 몰입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신뢰도 검증에는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학습동기 척도는 김진호(2003)[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10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0.916 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 척도

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계수는 0.80이었고, 박에스터(2009)[18]의 연구에서는 0.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34로 나타났다.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습동기와 교육몰입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추출 모델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직각회전 방식 중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동기에 대한 요인 수는 3개이다. 제 1요인은 지적호기심 동기(1, 6, 12, 18)와 학습성취동기(7, 13, 19), 학습자극동기(2, 8, 4)가 속하고 고유치는 8.473이다. 제 2요인은 상대적 유능성 동기(5, 11, 17, 21)와 실패회피동기(4, 10, 16)가 속하며 고유치는 3.013이다. 제 3요인은 사회적 성공동기(3, 9, 15, 20)가 속하며 고유치는 1.430이다. 이 결과는 김진호(2003)[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각 요인의 문항 내용을 검토하여 제 1요인을 내재적 동기, 제 2요인을 상대적 유능성동기, 제 3요인을 사회적 성공동기로 명명하였다. 자기결정성의 정도가 높은 내재적 동기 요인들이 모여서 제 1요인을 구성하고, 자기결정성이 구성하여, 자기결정성이 높은 외재적 동기 변인들이 제 3요인을 구성하며, 자율성이 낮은 외재적 동기 변인들이 제 2요인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학습동기 유형검사도구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몰입에 대한 요인 수는 4개이다. 제 1요인은 고유치는 9.078, 제 2요인의 고유치는 1.795이다. 제 3요인의 고유치는 1.658, 제 4요인의 고유치는 1.194이다. 제 1요인은 학습과제에 대한 탐구, 제 2요인은 목표와 피드백으로, 제 3요인은 자의식의 상실, 제 4요인은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로 명명하였다.

5. 분석 방법

수거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설문지 문항의 내적, 외적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표 1. 학습동기 요인분석 결과

문항	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다닌다.	<u>0.826</u>	0.007	0.206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다닌다.	<u>0.819</u>	0.022	0.249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는 즐거움 때문에 다닌다.	<u>0.813</u>	0.138	0.001
공부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하면 즐겁기 때문에 다닌다.	<u>0.810</u>	0.20	0.059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닌다.	<u>0.807</u>	0.114	0.096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 즐겁기 때문에 다닌다.	<u>0.804</u>	0.033	0.216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다닌다.	<u>0.775</u>	0.036	0.127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 때문에 다닌다.	<u>0.724</u>	0.317	0.026
수업시간이 재미있어서 다닌다.	<u>0.648</u>	0.230	0.142
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다닌다.	<u>0.627</u>	0.133	0.436
내가 유능하게 보이려면 이 강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닌다.	0.174	<u>0.823</u>	0.223
남들에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위해서는 이 강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닌다.	0.248	<u>0.783</u>	0.008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강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닌다.	0.311	<u>0.753</u>	0.057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강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닌다.	0.194	<u>0.681</u>	0.345
배우고 나면 나에게 혜택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다닌다.	0.036	<u>0.534</u>	0.442
취직이나 승진 등 직장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닌다.	-0.130	<u>0.539</u>	0.492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다닌다.	-0.120	<u>0.527</u>	0.311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다닌다.	0.213	0.204	<u>0.801</u>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강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닌다.	0.236	0.308	<u>0.717</u>
내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닌다.	0.326	0.254	<u>0.587</u>
좀 힘들지만 나중에 내게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닌다.	0.419	-0.077	<u>0.586</u>
신뢰도	.934	.829	.792
전체 신뢰도	.916		
고유치	8.473	3.013	1.430
설명된 총 변량(%)	40.346	14.349	6.812
누적변량 설명비율(%)	40.346	54.695	61.506

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습동기와 학습몰입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P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교육생들의 학습동기 유형이 교육몰입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05 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209명(90.9%)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았다. 연령은 40대가 87명(37.8%), 30대가 55명(23.94%), 50대가 43명(18.7%)으

표 2. 몰입 요인분석 결과

문항	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강의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0.792	0.045	0.097	0.149
이런 강좌가 있다면 다시 등록하고 싶다.	0.767	0.099	0.012	0.151
나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강의에 열중한다.	0.760	0.379	0.110	-0.030
이 강좌에서 배우는 것은 정말 즐겁다.	0.745	0.252	0.051	0.289
나는 강의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다.	0.738	0.299	0.189	-0.03
나는 강의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가 있다	0.698	0.362	0.045	0.075
나는 이 강좌를 참여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0.672	0.320	0.076	0.131
강의시간에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 같다.	0.592	0.558	0.119	0.059
나는 강의에 완전히 집중이 된다	0.556	0.532	0.154	0.134
나는 강의시간에 시각각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0.561	-0.05	0.341	0.124
나는 강의내용이 저절로 배워지는 기분이 든다.	0.511	0.354	0.109	0.287
나는 이번 강좌를 통해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	0.246	0.688	-0.03	0.182
나는 강의내용을 충분히 소화해낼 능력이 있다.	0.112	0.657	0.185	0.293
나는 강의시간에 제대로 배우고 있다고 확신한다.	0.398	0.648	0.122	0.231
내가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고민하지 않고도 금방 대답할 수 있다	0.342	0.643	0.171	-0.05
내 공부는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	0.069	0.631	0.256	0.102
나는 내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다	0.182	0.144	0.817	0.010
강의시간에 다른 사람이 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	-0.04	0.188	0.805	-0.05
나는 강의시간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0.286	0.152	0.701	0.196
강의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내 실력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0.113	0.025	0.073	0.857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	0.121	0.389	-0.05	0.692
강의내용이 수준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0.280	0.369	0.140	0.656
신뢰도	0.924	0.814	0.755	0.706
전체 신뢰도	0.934			
고유치	9.078	1.795	1.658	1.194
설명된 총변량(%)	41.262	8.158	7.534	5.427
누적변량 설명비율(%)	41.262	49.420	56.955	62.382

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137명(59.6%), 고졸이 80명(34.8%), 중졸 이하가 13명(5.7%)으로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종교는 불교가 77명(33.5%)로 가장 많았고 무교가 71명(30.9%), 기독교 56명(24.3%), 천주교 24명(10.4%), 기타 2명(0.9%) 순이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156명

(67.8%), 미혼이 70명(30.4%), 기타 4명(1.7%)이었다. 현재직업은 기타 160명(69.5%), 사회 복지사와 간호사가 각각 25명(10.9%), 간호 조무사 18명(7.8%), 간병인 2명(0.9%)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21	9.1
	여	209	90.9
연령	20대	37	16.1
	30대	55	23.9
	40대	87	37.8
	50대	43	18.7
	60대	8	3.5
교육	중졸이하	13	5.7
	고졸	80	34.8
	대졸이상	137	59.6
종교	기독교	56	24.3
	불교	77	33.5
	천주교	24	10.4
	무교	71	30.9
	기타	2	1.7
결혼	기혼	156	67.8
	미혼	70	30.4
	기타	4	1.7
현재직업	간병인	2	0.9
	사회복지사	25	10.9
	간호사	25	10.9
	간호조무사	18	7.8
	기타	160	69.5
계		230	100

3.2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변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 참가자들의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학습동기와 몰입 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따라서 평균이 2 이하인 경우 '낮다'라고 판단하고, 4 이상인 경우 '높다'라고 판단하였다.

학습동기는 3.63±0.61, 학습몰입은 3.65±0.52 로 “그저 그렇다”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정도

변인	평균	표준편차
내재적동기	3.75	0.75
상대적 유능성 동기	3.19	0.81
사회적 성공동기	3.95	0.70
학습동기 전체	3.69	0.61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	3.49	0.72
목표와 피드백	3.79	0.57
자의식의 상실	3.49	0.77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	3.85	0.68
학습몰입전체	3.65	0.52

3.3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관계

학습동기와 학습몰입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내재적 동기와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r=.602$), 목표와 피드백($r=.222$),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r=.154$)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중 내재적 동기와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간에는 상관계수(r)가 0.602로 강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이로 볼 때, 내재적 동기는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목표와 피드백,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에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상대적 유능성 동기와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r=.135$)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상대적 유능성 동기는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에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사회적 성공동기와 목표와 피드백($r=.227$),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r=.240$)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사회적 성공동기는 목표와 피드백,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에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자의식의 상실은 어떠한 동기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3.4. 학습동기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학습동기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산팽창요인(VIF)은 10 이상, 공차한계(TOL)는 0.1 이하면 다중 공선성을 의심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과 분산팽창요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동기와 상대적 유능동기, 사회적 성공동기는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은 학습동기가 증가될수록 높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β 계수로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내재 동기는 0.602, 상대적 유능동기는 0.135, 사회적 성공동기는 0.106로 나타나 내재 동기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표 6].

사회적 성공동기와 내재 동기는 학습과정으로의 통

표 5.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상관관계

변인	A1	A2	A3	
A1. 내재적 동기	1			
A2. 상대적 유능성 동기	0	1		
A3. 사회적 성공 동기	0	0	1	
A4.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	0.602**	0.135*	0.11	
A5. 목표와 피드백	0.222**	-0.06	0.227**	C
A6. 자의식의 상실	0.06	-0.06	-0.02	C
A7.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	0.154*	0.06	0.240**	C

**p<.01, *p<.05

표 6.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B	β	t	p	공선성 진단		F(p)	R
					TOL	VIF		
상수	-4E-170		-0	1				
내재적 동기	0.602	0.602	11.6	1E-24	1	1	48.523	0.602
상대적 유능성 동기	0.135	0.135	2.607	0.01	1	1		
사회적 성공 동기	0.106	0.106	2.041	0.042	1	1		

종속변수: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

	B	β	t	p	공선성 진단		F(p)	R
					TOL	VIF		
상수	8E-17		1E-15	1			12.753	0.052
사회적 성공 동기	0.227	0.227	3.613	4E-04	1	1		
내재적 동기	0.222	0.222	3.529	5E-04	1	1		

종속변수: 목표와 피드백

	B	β	t	p	공선성 진단		F(p)	R
					TOL	VIF		
상수	-1.34E-16		-0	1			14.421	0.113
사회적 성공 동기	0.298	0.298	4.772	3E-06	1	1		
내재적 동기	0.154	0.154	2.463	0.015	1	1		

종속변수: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

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습과정으로의 통합은 사회적 성공동기와 내재 동기가 증가될수록 높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β 계수로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 성공동기는 0.227, 내재 동기는 0.222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 유능동기는 학습과정

으로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표 6].

사회적 성공동기와 내재 동기는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은 사회적 성공동기와 내재 동기는 증가될수록 높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β 계수로 각각의 영향력

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 성공동기는 0.298, 내재 동기는 0.154로 나타나 사회적 성공동기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동기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B시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생 230명을 대상으로,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두 개의 변인에서 “그저 그렇다”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효련과 이은주(2011)[2]의 연구에서의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참여동기 수준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원호숙(2009[19])의 연구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김동민(2009)[20]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몰입은 동기와 학습성과 간을 매개하는 필수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노효련과 이은주(2011)[2]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기 수준이 “그저 그렇다”로 나타나서 학습몰입 수준도 “그저 그렇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21].

본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는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목표와 피드백,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유능성 동기는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에 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성공동기는 목표와 피드백,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식의 상실은 어떠한 동기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동기와 몰입이 관련이 가장 깊다는 연구들[8][22][23]과 유사한 결과로,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동기가 학습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8]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은 미래의 보상이나 혜택보다는 학습 그 자체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학습하게 된다[8].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하

게 된다면 학습과정 자체가 즐거워지며 이에 따라 학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족감과 성취감이 라는 성과를 얻게 된다[24].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은 학습동기가 증가될수록 높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 중 내재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성공동기가 증가될수록 목표와 피드백과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에 대한 학습몰입이 높아지는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은주(2001)[23]는 자기 결정감이 높은 내재적 동기가 몰입과 관련성이 높고 타율적인 외재적 동기와 무동기와 같이 자기 결정감이 낮은 동기로 동기화될수록 몰입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내재적 동기가 학습몰입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회적 성공동기와 상대적 유능성 동기와 같은 외재적 동기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학습자들이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학습과제나 학습과정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경우가 바람직하다[20]. 그러므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내재적 동기 뿐만 아니라 외재적 동기에서도 몰입도와 상관성이 나타난다고 사려된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취득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재적 동기와 몰입도와 상관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출해 낸 결론은,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몰입정도는 학습 자체에 의미를 두는 내재적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외재적 동기에도 영향을 일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지역의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과 학습의 몰입정도에 미치는 변수가 많으므로 학습 동기적인 단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은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육적인 측면 뿐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측면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1] 유수정, 김신미, 이윤정, “노인유사체험학습이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제6호, pp.974-982, 2004.
- [2] 노효린, 이은주,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교육생의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2권, 제1호, pp.36-44, 2011.
- [3] 제갈현숙,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공급구조의 왜곡된 시장화: 시행 1년을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진보평론, 제1호, pp.211-233, 2009.
- [4] 박지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현장 활용 적합성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5] 유재웅, 최우진,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제19권 제1호, pp.139-165, 2009.
- [6] 이미자,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제2권, 제1호, pp.69-74, 2008.
- [7] 조정민 DACUM 기법에 의한 노인 요양보호사 직무 분석,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제15권, 제1호, pp.66-75, 2008.
- [8] R. W. Boshier,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lternative form of the rducation participation scale,”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41, No.3, pp.150-167, 1991.
- [9] 김진호, “성인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10] 박성익, 김연경,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몰입요인, 몰입수준, 학업성취간의 관련성 탐구”, 열린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pp.93-115.
- [11] M. Csikszentmihalyi,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 Jossey-Bass, 1975.
- [12] B. L. Harju and M. A. Eppler, “Achievement of motivation: Flow and irration beliefs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college students,” J of Instructional Psychology, Vol.24, No.3, pp.147-157, 1997.
- [13] P. R. Pintrich and D. H. Schunk,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2002.
- [14] E. L. Deci,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1975.
- [15]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 [16] R. J. Vallerand and R. Bissonnette,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 of personality, Vol.60, No.3, pp.599-620, 1992.
- [17] S. A. Jackson, and H. W. Mars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18, pp.17-35, 1996.
- [18] 박에스터, 웹기반 프로젝트 학습에서 학습 과제의 실제성, 몰입, 성취도, 만족도간의 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9] 원효숙, “요양보호사의 교육과 직무만족에 관한 고찰 연구”,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0] 김동민, “성인학습자의 학습 평생교육 만족도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1] L. S. Shulman, “Making differences: A table of learning,” Change, Vol.34, No.6, No.36-44, 2002.
- [22] 소연희, “성취목표지향성, 지각된 학습목표구조, 목표몰입의지, 자기조절학습 및 수학학업성취의 구조적 분석”, 아동교육, 제19권, 제3호, pp.41-56, 2010.
- [23] 이은주, “몰입에 대한 학습동기와 인지전략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5권, 제3호, pp.199-216, 2001.
- [24] 김나영, 사이버교육에서 학습동기, 프로그램, 조직의 지원과 상호작용, 몰입 및 학습 성과의 구조

적 관계 규명, 2008.

저 자 소 개

노 효 린(Hyo-Lyun Roh)

정회원



- 1986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보건학사)
- 2006년 8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
학과(이학석사)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
학과(이학박사)

▪ 2009년 3월 ~ 2010년 2월 : 충북 영동대학교 작업치
료학과 교수

▪ 2011년 ~ 현재 :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 치료, 교육, 중독, 신경계 치료